

“지금 이 골든타임”... 황성업, 자본시장 구조개편 드라이브

금투협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 이달 말 ‘K자본시장 포럼’ 출범 퇴직연금 유연한 운용 필요성 강조 자본시장 개혁, 정부 등 협력 필요

황성업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K자본시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본시장 구조개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단기 대응을 넘어 10년 단위 청사진을 통해 시장을 ‘국민 자산 플랫폼’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황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자본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단행한 조직 개편과 관련해 “회원사 지원이라는 단기 과제와, 장기 청사진이라는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물이 바로 ‘K자본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피 6000은 조만간 도달할 수 있는 목표지만,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전체를 브랜드화하고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황성업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K자본시장 포럼’을 출범시키고, 10개 내외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정조준... “수익률 낮은 구조 문제”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다뤄진 이슈는 퇴직연금이었다. 황 회장은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원인으로 ‘보수적 운용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여 있다”며 “이 구조에서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 규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황 회장은 “투자자가 50대50으로 자산을 배분했다더라도 시장 상승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으면 다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투자 기회를 제약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보다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수익률 개선 요구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거버넌스 문제를 핵심 변수로 짚었다. 그는 “퇴직연금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계약형과의 균형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글로벌·ETF까지... 황 회장 “자본시장 문샷 필요”

황 회장은 자본시장의 본질을 ‘생산적 금융’으로 규정하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와 BDC에 대해서는 “정부 의지가 강하고 과거보다 투자 구조도 정교해졌다”며 “시장에 안착하면 중요한 자금 공급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초기에는 운용사 중심이지만 향후 증권사까지 참여가 확대되면 자기자본을 활용한 선제 투자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흐름은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 확대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황 회장은 글로벌 투자 유입과 상품 다양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WGBI 편입은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MSCI 선진지수 편입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TF 시장과 관련해서는 과열 경쟁을 인정하면서도 규제 강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대광고 논란은 있지만 제도 개선은 신중해야 한다”며 “시장 경쟁과 투자자 보호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며 “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거래시간 연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황 회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준비 기간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간담회 말미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문샷’에 비유하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자본시장도 정부·국회·언론·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금 이 바로 그 문샷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2주 휴전 기대 식었다... 코스피 다시 후퇴

대외 불안 요인 재부각... 상승세 꺾여 일시적 휴전 가능성, 전쟁 리스크 여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2주 휴전’ 기대에 차츰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방향을 틀었다. 유가 급등과 환율 반등 등 대외 변수 불안이 지속되면서 ‘육천피’ (코스피 6000) 기대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1% 하락한 5778.01에 마감했다. 전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2주 휴전 합의로 6%대 강세를 보이면서 6000선 재진입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날은 다시 하락 반전됐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5월물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97.77달러로 3.56% 오르는 등 다시 급반등을 시도 중이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전날 33.6원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도 10.0원 상승 개장했다.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자본유출입부장은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으로 인해 단기적인 금융 시장 전반의 위험선호 회복이 예상되나,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며 “시장 참가자들은 휴전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에너지 인프라의 복구·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낙관론이 확대될 수 있지만, 양국의 요구 조건이 합치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반도체 업종 역시 전쟁 종식 여부가 향후 흐름을 가를 변곡점으로 여겨진다. 전날 코스피 강세는 기관 투자자가 2조7268억원, 외국인은 1조9089억원을 순매수하며 주도했다. 특히 외국인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2조원 가까이 순매수를 기록했다.

또한, 중동전쟁 발발 이후 반도체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은 저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48.46%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 삼성전자를 18조 2437억원, SK하이닉스를 8조 1492억원 씩 순매도하면서 차익실현에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들어 7일까지도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태도를 유지했지만, 전날 대규모 순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반전됐다.

이날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1조 2410억원, 삼성전자를 5052억원씩 담았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를 높게 유지하면서 이달 가장 많이 사들이기도 했다. 반도체 업종은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에 달하는 만큼 중요 변수로 꼽힌다.

/신하은 기자 godhe@

NH투자증권, 투자형 우주항공 지수 출시

밸류체인 반영·스페이스X 편입 설계

NH투자증권은 9일 ‘iSelect 미국우주항공 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수는 로켓 발사체를 비롯해 위성인터넷, 우주방산, 첨단소재, 위성정보서비스 등 우주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 초기발사체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성숙 단계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해 기존 우주항공 지수와 차별화했다.

지난 6일 기준 편입 종목에는 로켓랩(Rocket Lab), AST 스페이스모바일(AST SpaceMobile), 인튜이티브 머신스(Intuitive Machines), 에코스타(EchoStar), 플래닛 랩스(Planet Labs),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스(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트랜스다임(TransDigm) 등이 포함됐다. 발사체, 위성통신, 우주탐사, 위성정보서비스, 방위산업, 항공우주 부품 등 다양한 분야 기업으로 구성됐다.

/허정윤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한국투자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뱅크스 버디 2기’ 발대식에 참석한 서포터즈와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투증권 ‘뱅크스 버디 2기’ 활동 돌입

대학생 60명, 4개월간 미션 수행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대학생 대상 브랜드 홍보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뱅크스 버디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총 60명으로 구성됐다. 서포터즈는 약 4개월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투자증권

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 브랜드 ‘뱅크스(BanKIS)’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SNS 콘텐츠 제작 및 바이럴 활동, 캠퍼스 투어와 현장 홍보, 대학생 대상 투자정보 전달, 투자 플랫폼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팀별 협업형 콘텐츠 제작과 캠퍼스 중심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MZ세대와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감사의견 미달 등 54개사 퇴출 위기

코스피 12곳 코스닥 42곳

2025사업연도 결산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2곳, 코스닥 42곳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수는 총 54개사였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12개사, 코스닥시장에서 42개사였다.

전년에는 각각 14개사, 43개사로 총 57개사였다.

이 가운데 3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1개사, 코스닥시장 8개사였다.

이와 별도로 감사의견 관련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곳은 유가증권시장의 경

우 2곳, 코스닥시장은 4곳이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8곳, 코스닥시장은 17곳이었다.

반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기업은 각각 3곳, 10곳이었다.

아울러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종목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43개였고, 해제된 종목은 같은 시장에 상장된 21개사였다.

/신하은 기자